

# **충남 사회적경제의 여건분석**

**김 양 중**

**(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)**



- 충남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과거 10년간 독보적인 외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
- 충남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내발적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타시도에 한발 앞서 추진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, 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



- 사회적경제의 인식확대 및 홍보
- 사회적경제 영역의 D/B 구축
- 사회적경제 예산의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
- 사회적경제 주체간의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공유
-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

## 1. 충남의 경제현황

<표 1> 충남의 경제현황

경제현황	문제점
충남 GRDP 5위(66조) 1인당 GRDP 2위(3,300만원) 연평균 GRDP 성장률 1위(연 9.8%)	취약계층비중(53.5%) 1위 고령인구비율(14.87%) 4위 민간소비지출(1,108만원) 11위 재정자립도(36.6%) 10위

### 1) 충남의 경제현황

- 그동안 충남은 외자유치, 기업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달성하였음
- 2009년 충남의 GRDP는 66조로 16개 시도 중 5위이며, 특히 1인당 GRDP<sup>1)</sup>는 3,370만원으로

울산에 이어 2위

- 충남은 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5.8%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, 2000년 이후 연평균 GRDP 성장률은 9.1%로 16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
- 이처럼 충남의 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왔고, 수치적으로만 살펴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경제우위 시도임
-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

## 2) 충남의 문제점

- 충남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외자유치, 기업유치가 북부 4개 시군(천안·아산·서산·당진)에 집중되어 일부 성과는 달성하였을지라도 충남경제는 지역불균형과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,
- 그마저도 수도권 규제완화, 지역 간 과당경쟁 등으로 투자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전기업의 지역기여활동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-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충남경제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- 첫째, 2008년 충남의 월평균 임금 60% 이하 취약계층비중<sup>2)</sup>은 53.5%로 16개 시도 중 1위였으며,
- 둘째, 2010년 충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<sup>3)</sup>은 14.87%로 16개 시도 중 4위였음
- 셋째, 2009년 충남의 민간소비지출<sup>4)</sup>은 1,008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11위로 전국평균인 1,185만원보다 적었으며,
- 넷째, 2010년 충남의 재정자립도<sup>5)</sup>는 36.6%로 16개 시도 중 10위로 전국평균인 52.2%도 미치지 못하였음
- 이처럼 외형적성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충남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발적 발전의 계기가 필요하며, 내발적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필요
- 그러나 비단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토대는 아직까지 모든 시도에서 취약한 실정

---

1) 1인당 GRDP는 울산(4,623만원), 충남(3,370만원), 전남(2,864만원), 경북(2,655만원), 서울(2,565만원) 순

2) 한국노동연구원의 2008년 노동패널데이터 분석결과 임

3) 고령인구비율은 전남(18.29%), 경북(15.57%), 전북(15.22%), 충남(14.87%) 순

4) 민간소비지출은 서울(1,516만원), 울산(1,214만원), 경기(1,206만원), 부산(1,142만원) 순

5) 재정자립도는 서울(85.8%), 경기(72.8%), 인천(70.4%), 울산(67.2%) 순

## 2. 충남의 사회적경제

- 외형적 성장이 도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였고, 충남도 또한 그 혜택을 완전히 공유하지 못하였음
- 외형적성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과 충남의 재정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 지역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해야 함
- 이에 충남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회적경제 T/F 구성,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신설 등 다른 시도에 한발 앞서 내발적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음

### 1)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

- 충남의 사회적경제 지원의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T/F 주요업무는 사회적기업육성, 마을기업 육성 등 아직까지 일부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, 2011년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 예산 또한 56억 정도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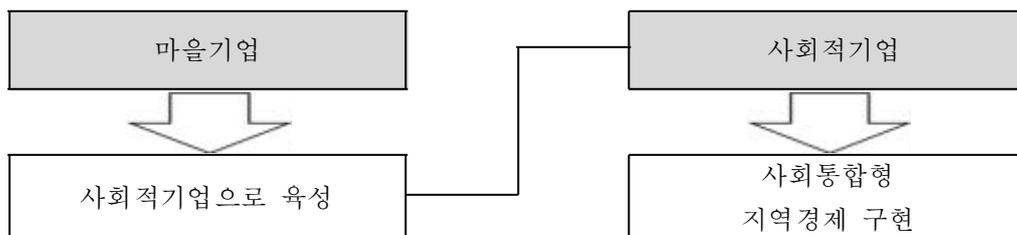
<표 2> 2011년 충남의 사회적경제지원 예산

(단위: 백만원)

지원사업	예산	비고
사회적기업육성 (사업개발비포함)	4,502	(국 2,972, 도 1,330, 부 200)
마을기업 육성	1,070	(국 535, 도 535)

-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육성 사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<표 3>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관계도



-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(향토·문화·자연자원 등)을 활용,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풀뿌리형 마을기업을 발굴·육성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
-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형 지역경제 구현에 그 목적이 있음
-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매칭성격으로 충남만의 차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은 전무한 실정임
- 충남도는 2012년 사회적경제의 지원확대를 위해 예산의 증액을 계획
- 주요사업은 사회적경제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(14억),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기반구축에(4억), 사회적경제추진지원역량강화(11억), 사회적경제 이해확산 및 사업모델 발굴 지원(17억), 기존사업 확대시행(14억) 임

〈표 4〉 2012년 충남의 사회적경제지원 확대현황

사 업 명	소요사업비(백만원)				
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(사회적경제 분야)	15,939	8,640	4,082	3,208	9
①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	1,410		1,410		
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	400		400		
③ 사회적경제 이해확산 및 사회적기업 육성	305		248	48	9
④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	13,824	8,640	2,024	3,160	

자료: 충남도청 내부자료

## 2)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

### (1) 사회적기업

- 비단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
- 사회적경제의 영역에는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에서부터,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, 민간지원 기관, 사회적경제 조직까지 다양함
- 충남도의 경우 다른 시도와는 차별적으로 사회적경제 T/F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,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자립형공동체사업(마을기업)의 인증 및 컨설팅지원 등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을 돕고 있음

<표 5> 사회적경제 조직유형

유형분류	세부설명
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	장애인 보호직업장
	노인생산공동체
	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
	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
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	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
	노동부 사회적기업
	충남형 사회적기업
	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(=마을기업)
	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
	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
민간지원기관	대안금융기관
사회적 경제조직	시민단체(서비스공급형)
	노동자협동조합
	소비생활협동조합
	농협
	수협
	산림조합
	신협
	새마을금고

- 충남의 인증 사회적기업수는 2011년 6월 기준 17개로 대전(11개), 제주(11개)를 제외하면 전국 하위권이나 충남형(지역형) 사회적기업수는 30개로 지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

<표 6> 사회적기업 수(2011년 6월 기준)

사도	합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
계	1,591	547	110	51	69	56	33	24	225
인 증	531	118	28	28	34	20	11	18	94
예 비	149	52	12	-	4	5	9	2	3
지역형	911	377	70	23	31	31	13	4	128
사도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
계	80	36	52	72	53	89	68	26	
인 증	32	24	17	24	27	25	20	11	
예 비	7	4	5	8	5	4	26	3	
지역형	41	8	30	40	21	60	22	12	

<표 7> 충남형 사회적기업 수(2011년 7월 기준)

구 분	계	보건보육	사회복지	문화	환경녹지	교육	가공유통	기타
계	80	4	7	7	10	5	35	12
인 증	17	3	5	-	3	2	2	2
예 비	5	-	-	1	1	-	2	1
지역형	58	1	2	6	6	3	31	9

- 2011년 7월 기준 충남의 분야별 사회적기업 수를 살펴보면, 총 80개중 가공·유통분야 35개, 환경·녹지분야 10개, 기타분야 12개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음
-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분야가 5개(29.4%)로 가장 많은 반면,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가공·유통분야가 31개(38.8%)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

**<표 8> 시군별 충남형 사회적기업 현황(2011년 7월 기준)**

구분	합계	인증	예비·지역형
계	80	17	63
천안시	12	4	8
공주시	5	2	3
보령시	1	-	1
아산시	8	1	7
서산시	5	1	4
논산시	8	2	6
계룡시	-	-	-
금산군	6	2	4
연기군	5	3	2
부여군	3	1	2
서천군	10	-	10
청양군	3	-	3
홍성군	4	-	4
예산군	5	-	5
태안군	2	-	2
당진군	3	1	2

- 2011년 7월 기준 사회적기업의 시군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, 천안시가 12개, 서천군 10개, 아산시와 논산시가 각각 8개 등이 분포하고 있음.
- 반면, 계룡시는 사회적기업이 한 개도 없고, 보령시는 1개, 태안군은 2개에 불과함
- 인증 사회적기업이 1개도 없는 시군은 보령시, 계룡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 등 7개 시군이며, 충남형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는 시군은 계룡시가 유일함

**<표 9> 충남형 사회적기업 조직유형**

구분	합계	상법회사	사단재단법인	사회복지법인	민간단체	영농(어)조합	소비자생협	농협
합계	80	37	6	2	15	18	1	1
인증 사회적기업	17	9	1		6	1		
예비 사회적기업	5				4		1	
지역형 사회적기업	58	28	5	2	5	17		1

- 충남 사회적기업의 조직유형을 살펴보면 상법회사(주식회사, 유한회사 등)가 37개로 전체의 46.3%, 영농(어)법인 18개(22.5%), 민간단체 15개(18.8%)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음
- 상법회사가 많은 이유는 공익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, 협동조합 등에 대한 승인

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비교적 설립이 쉬운 상법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## (2) 마을기업

- 충남의 마을기업은 2010년 11개, 2011년 26개 등 총37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었음. 그러나 2011년 4개 마을기업은 2차 사업으로 재선정<sup>6)</sup>되어 2010-2011년 기간 중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33개임
- 시군별 마을기업 분포를 보면, 서천군과 홍성군이 각각 4개, 천안시, 공주시, 논산시, 부여군, 예산군, 태안군이 각각 3개씩 분포하고 있음
- 마을기업 조직유형을 보면, 마을공동체가 18개(55%), 영농조합이 10개(30%), 사단법인 2개(6%)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
- 마을기업 사업내용을 보면, 농촌·문화체험이 12개(37%), 농식품제조 8개(24%), 농산물생산·판매 7개(21%)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음
- 충남도 33개 마을기업의 총 회원수는 1,150명으로 기업당 평균 34.9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음
- 마을기업 회원규모는 11명~30명이 15개(45.5%), 1명~10명과 31명~50명이 각각 6개(18.2%)를 차지하고 있음. 따라서 50개 이하 중소규모 회원규모를 가진 기업이 27개(81.8%)로 대부분의 마을기업을 중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.

## 4) 중소기업지원정책과의 비교

- 본 절에서는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의 프로그램과 예산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진단해 보고자 함
- 충남은 중소기업 토탈지원, 일자리 창출, 서민생활 안정, 전략산업 육성, 산업입지 공급 등 중소기업 육성계획(38개 과제)을 추진 중에 있음

---

6) 천안 양곡마을회, 서천 홍림2리 마을회, 홍성 흥동 문당권역 3개단체, 홍성 흥동마을 자치주민 모임 등

<표 10> 충남의 2011년 중소기업지원 예산

사 업 명	사업량	사업비	재 원 별 (백만원)			
			국 비	도 비	시군비	기타
합계 (9개 분야)	38개 과제	341,143	259,219	24,900	39,518	17,506
1. 중소기업 금융지원	3개 과제	5,820		5,820		
2.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수출지원확대	6개 과제	3,065	1,000	2,060		5
3. 기업·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	4개 과제	1,378		440	938	
4.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제도모	4개 과제	20,315	11,197	500	8,412	206
5. 투자 및 창업 활성화	3개 과제	31,487	21,600	3,117	6,770	
6. 산업용지 적기 공급	5개 과제	167,949	164,444	705	2,800	
7. 일자리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칭 해소	3개 과제	3,786	2,172	1,554	60	
8. 신기술 개발 및 지역특화산업육성	5개 과제	16,562	9,999	2,440	505	3,618
9.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전략 산업 육성	5개 과제	90,781	48,807	8,264	20,033	13,677

- 총사업비는 38개 과제 총 3,411억 규모(국비 2,592억, 도비249억, 시군비 395억 등)
- 충남의 사업체 수는 소상공인 포함 13.1만개로 전국 대비 4% 수준
- 비록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 관련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충남의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분야는 금융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음
-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남의 사회적경제 지원 총예산은 56억 수준이나 충남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총예산은 3,400억 정도이며 특히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전략산업 육성에는 900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
- 충남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예산은 중소기업육성정책 예산의 1.6% 수준이며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전략산업육성 예산과 비교해보더라도 6.2%에 불과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짐

### 3. 충남 사회적경제 SWOT 분석 및 결론

〈표 11〉 충남 사회적경제 SWOT 분석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</li> <li>- 사회적경제 T/F 신설</li> <li>-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</li> </ul>	강점	약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족한 지원예산</li> <li>- 인증 사회적기업 수 전국 하위권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짐</li> <li>- 내발적 발전의 중요성이 커짐</li> <li>-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확대</li> <li>-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증가</li> </ul>	기회	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군의 불균형 발전 심화(충남 북부 4개시도 편중)</li> <li>- 고령화양극화 심화</li> </ul>

- 충남 사회적경제의 강점요인: 충남은 다른 시도보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.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고, 사회적경제 T/F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충남발전연구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음
- 충남 사회적경제의 약점요인: 충남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예산은 56에 불과하며,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 수 또한 전국 하위권
- 충남 사회적경제의 기회요인: 어느 때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적관심인 높아졌고, 외형적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내발적 발전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중요성이 커짐
- 충남 사회적경제의 위기요인: 충남 16개 시군의 불균형 발전과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양극화가 가속
- 충남 사회적경제의 위기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인식을 확대 하고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,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회지표(사회적경제 D/B)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임
- 아울러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, 사회적경제 예산의 확대와 계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
- 또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며 충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

-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단체들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육성하는 것이 필요
- 이들 단체들과 사회적기업 연계모델을 개발, 전문기관 상담·컨설팅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
- 또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·육성·유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함